

《祝 辞》
《축 사》

大橋 謙策
오하시 겐사쿠
日本社会事業大学 学長
일본사회사업대학 학장

祝 辞

大橋 謙策
日本社会事業大学
学長

2008年度・第6回「日韓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が（財）ユニバーサル財団のご支援の基、東洋大学を始め多くの関係者のご協力を得て、ここに開催できますことを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本セミナーは当初、（社福）こころの家族・尹基理事長が日本と韓国の社会福祉関係者の交流を深め、日韓のこころの絆をより豊かにしようとの目的で、（財）ユニバーサル財団のご支援を得て、（社福）こころの家族主催でシンポジウムを日本と韓国とで相互に開催してきたことが始まりです。しかしながら、社会福祉関係者の交流はここ10年日本社会福祉学会や日本地域福祉学会を始め、大学間の交流、姉妹校提携も進んできていることから、将来を見据え、若い人の交流を促進することが大切ではないかと考え、従来の相互関係者によるシンポジウムは残しつつも大学院生の交換プログラムを加味したものへと発展させることになりました。そのために、日本と韓国の社会福祉教育学校連盟の代表者にも実行委員会に加わって頂きプログラム等を検討してきました。

ご支援を頂いている（財）ユニバーサル財団は既に日本とアメリカとの間に社会福祉を学ぶ学生の交換プログラムを有しています。これからは、日米間の交流もさることながら、アジア諸国との若い人々の交流が大切であり、そのことが世界の平和に貢献できると考え、この度「日韓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の改組・発展を了解してくれました。当面は、韓国と日本の若者の交流ですが、いずれ中国やモンゴルを始めアジア諸国の国々の社会福祉を志す若者の交流へと発展できればと願っています。

本セミナーのテーマは、「住民と行政の協働による地域づくりとコミュニティソーシャルワーク」と致しました。社会保険制度による所得保障を軸とする「福祉国家」体制は産業構造の変容や多様な国際化の進展に伴い揺らいでいます。急速な少子・高齢化は従来の血縁による問題解決の限界を超え、所得保障とは異なる対人援助サービスを求めています。今や、社会福祉は行政だけでは担えず、住民と行政の協働による新

たな社会システムと哲学を求めています。今回は、国の制度を越えて、住民と行政が協働して共に生きる社会を創造する考え方と方向について日本と韓国の実態を踏まえて論議できればと考えています。

ところで、(社)日本社会福祉教育学校連盟は今、国際ソーシャルワーカー連盟と国際ソーシャルワーク教育学校連盟が共同で提起しているソーシャルワーク教育の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の考え方を受け止め、EU 諸国が進めている 1999 年の「ボローニヤ宣言」に基づく「ボローニヤ・プロセス」に学びながら、「アジア型ソーシャルワーク教育の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化と国家資格の互換性」に関する共同研究を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ます。近い将来、アジア諸国の社会福祉従事者の国際間移動が必要とされてくるでしょうし、実態も進む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本セミナーでの論議がそのような将来を見据えた作業の礎になればと願っています。

お忙しい中、今回のセミナーにご参加頂きました韓国の関係者に心から御礼を申し上げますとともに、本セミナーが実りあるものになりますことを祈念し、日本の実行委員を代表しての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축 사

오하시 겐사쿠
일본사회사업대학
학장

2008년도 제6회 “한일 마음의 교류 프로그램”이 재단법인 유니벨 재단의 지원으로 도요(東洋)대학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이곳에서 개최될 수 있게 된 것을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는 당초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윤기(尹基)이사장이 한국의 사회복지관계자와의 교류를 깊게 하고 한·일 마음의 연계를 보다 폭넓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단법인 유니벨 재단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주최로 심포지움을 일본과 한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해 온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러면서도 사회복지관계자의 교류는 최근 10년간 일본사회복지학회와 일본지역복지학회를 비롯, 대학간의 교류, 자매학교 제휴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장래를 바라보며 젊은이들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사료되어 종래의 상호관계자에 의한 심포지움은 그대로 남겨두면서도 대학원생의 교환프로그램을 가미한 것으로 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과 한국의 사회복지교육학교연맹의 대표자에게도 실행위원회에 들어오도록 해 프로그램 등을 검토해 온 것입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재단법인 유니벨 재단은 오래전부터 일본과 미국과의 사이에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교환 프로그램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미간의 교류도 펼쳐나면서 아시아 제국과의 젊은 사람들과의 교류에도 비중을 두겠습니다. 그것이 세계의 평화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한·일 마음의 교류프로그램”을 발전적으로 개조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선 당면과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젊은이들의 교류이지만 언젠가는 중국이나 몽골 등 아시아 제국의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젊은이들의 교류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테마는 “주민과 행정의 협동에 의한 지역만들기와 커뮤니티 소셜워크”로 했습니다.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소득보장을 축(軸)으로 하는 “복지국가” 체제는 산업구조의 변용과 다양한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흔들리고 있습니다. 급속한

소자(少子)·고령화는 지난날의 혈연에 의한 문제해결의 한계를 넘어 소득보장과는 다른 대인(對人) 원조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행정만으로는 감당할 수없으며 주민과 행정의 협동에 의한 새로운 사회시스템과 철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의 제도를 넘어서 주민과 행정이 협동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창조하는 사고방식과 방향에 관해서 일본과 한국의 경우를 실례로 들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 일본사회복지교육학교 연맹은 국제소셜워커 연맹과 국제소셜워크교육학교 연맹이 공동으로 제기하고 있는 소셜워크 교육의 글로벌 스탠더드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제국이 진행하고 있는 1999년의 “블료나 선언”에 기초한 “블료나 프로세스”를 배우면서 “아시아 형 소셜워크 교육의 글로벌 스탠더드화와 국가자격의 호환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 아시아 제국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국제간 이동이 필요한때가 올것입니다. 현실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의 논의가 그같은 장래를 내다본 작업의 초석(礎石)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한국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번 세미나가 결실을 거둘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일본측의 실행위원을 대표해서 인사를 올립니다.